



시작과 끝 함께

속속 의견일치

휴가 후 3주 간 다수 사업장 2018년 임단협 의견일치에 이르렀다. 집단교섭 사업장 중에는 신한발브, 에스제이엠, 우창정기지회가 단협 의견일치를 했다. 신한은 건강검진 조항 확대 등 8개 조항을 상향하고, 조합원 애경사 전세버스 제공,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했다. 우창은 우선채용, 표창, 휴직, 수당, 유급휴일과 특별휴가, 학자금 등 10여 개 조항을 갱신하고, 금속노사공동위는 중앙·지부교섭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에스제이엠은 핵심인 고용안정 쟁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내공장 우선적용 등에 합의했다. 다수 단협 조항을 갱신하고 노사공동위 조항도 신설했다. 신입사원 초봉 관련 추가 논의가 남아있다. 집단교섭 사업장 임금은 집단교섭에서 공동요구와 함께 합의한다. 대각선 사업장인 대창지회는 임금협약 의견일치를 마치고 오는 11월 예정된 단체협약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르그랑코리아지회도 임금과 단체협약에 의견일치를 마쳤다.

끝내주는 경기? 끝낼 힘 길러주는 경기

집단교섭 10개 사업장 중 회사 경영이 특수한 상태에 있는 두원 외에 선택과 주연테크, 현대케피코가 남았다.



▲ 단협 무효소송 취하 합의를 보고하는 이영조 선택지회장

단협 무효소송으로 물의를 빚었던 선택에 힘을 실었다. 16일 지부 교섭위원과 간부들이 선택에 집회를 잡았다. 회사는 오전부터 만나자 했고, 몇 차례 논의 끝에 집회 직전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이영조 지회장은 "산별노조의 힘이 산꼭대기 먼지 풀풀 풍기는 선택에도 미쳤다" 했고, 모두 기분 좋게 박수를 쳤다. 정구양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끝내주는 지부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자력으로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힘주는 지부"라며 45일 넘게 투쟁한 선택 조합원에게 감사인사를 보냈다. 선택은 지난 주 회사가 안을 내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주연테크는 원거리 공장이전 관련 출퇴근시간 조정, 통근 버스 운영 등 기존에 논의되던 쟁점들을 회사가 모두 뒤집고 9월 이전을 추진하기로 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연테크 조합원들은 현장 출근투쟁, 금요일 3시간 파업 후 분사 선전전 등 투쟁을 진행 중이다. 처음 간부들부터 시작하려던 투쟁에 조합원들이 "우리도 가겠다" 해서 판이 커졌다. 23일(목) 16차 집단교섭에서 지부는 "주연 문제 해결 안 되면 집단교섭 마무리는 없다. 다음 주까지 진전 없다면 다음 교섭은 홍대에 있는 주연본사에서 하자"고 했다.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고, 24일, 28일 교섭이 이어졌다. 17차 교섭은 주연테크 안양공장에서 열고, 교섭 상황에 따라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 안양공장 출근선전전 중인 주연테크 조합원, 간부들

현대케피코는 17년 교섭이 올 해 3월에 끝나 사업장 교섭이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올 해 현대차지부 교섭이 휴가 전 빠르게 타결되어 매년 회사가 얘기하던 '그룹사 눈치'는 조건이 달라졌다. 지부는 현대케피코도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회사가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함께 끝, 최고 곳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낸다. 힘 있어 몇 걸음 먼저 가면 뒤돌아 어려운 곳에 손 내밀고 도착점에 가기까지 돕고 기다린다. 휴가 전 사업장 보충교섭 의견일치한 대원산업지회(안산/평택)는 매년 하던대로 조합원 모두 5만원씩을 걷었다. 주연테크지회와 선택지회, 시그네틱스분회, 광신관지분회 등 지부 현안사업장에 투쟁기금으로 힘을 보탤다. 쌍용차지부와 파인텍 등 어려운 곳도 잊지 않았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는 전통, 손 내밀어 함께 가는 마음. 경기지부 최고 곳발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태풍도 비껴간 운발



코리아에프티, 삼년 묵은 거 털자

8.24(금) 지부 간부들이 안성에 모였다. 지난 주 내내 뉴스에 선 태풍 솔릭 때문에 난리였다. 태풍 오는 날,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집회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 비가 약간 왔지만 태풍은 비껴갔고 구름 낀 선선할 날씨에 집회하기 더없이 좋았다. 코리아에프티는 노조설립 4년차지만 단체협약 갱신은 최초다. 삼년 묵은 요구가 만만할 리 없다. 68개 요구 중 몇 가지 외에 합의했지만, 상여금 원상회복, 체불임금 등 목직한 쟁점이 있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지부 간부들은 공도공장에 집결해 공단을 행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지회를 응원했다. 정구양 지부장은 “올 해 임단협이 안 끝난 사업장이 대부분 신생사업장과 얼마 안 된 곳들이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안다. 힘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안다. 모든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자” 했다.

말레, 해마다 더 예쁘다

말레동현화성지회도 휴가 후 부분파업에 이어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줄어든 임금보전방안으로 토요일유급휴일 복구가 핵심쟁점이 됐다. 단협도 조합활동 관련 다수 갱신을 요구했다. 27일~28일 신나게 전면파업을 하는 중 28일 회사의 요청으로 교섭이 열렸다. 핵심쟁점에 대한 일부 제시안이 나왔고 지회는 보고대회를 열어 파업을 잠시 멈추고 집중교섭을 하기로 했다. 집중교섭에서 조합활동 등 3년 만에 갱신하는 단협 조항을 논의한 후 핵심쟁점과 함께 타결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합원 교육에서 “우리 호주머니 채우는 게 파업의 목표가 아니다. 매년 하는 투쟁, 돈 그거 올 해 못 따면 내년에 따면 된다. 중요한 건 내 옆의 동료가 매년 함께 투쟁하면서 매년 더 예쁘고 소중한 거” 이라고 했다. 말레 조합원들은 올 해도 더 예뻐지는 중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



모비스화성, 위아안산, 모비스평택 부품3사 파업이 한참이다. 오늘(수) 안산을 시작으로, 30일(목) 평택, 31일(금) 화성이 연이어 파업한다. 모비스화성과 위아안산은 임금교섭, 모비스평택은 첫 임단협 중이었는데, 단협은 휴가 직후 잠정합의를 마쳤다. 모두 임금이 남았다. 우리 요구는 ‘노조없을 때 매년 회사가 하던대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 인상’이다.

현대그룹은 노사관계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계열사 노조들 중 한 두 군데를 집중공략해 타결한 후 나머지 계열사들에 ‘투쟁해도 그 이상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줄 세우는 방식으로 노조를 길들여왔다. 작년 화성에 노조가 생긴 후 부

품계열사에 계속 노조가 만들어져 올 해 10개가 됐다. 직서열 모듈사들의 파업은 바로 완성차를 멈추고, 모비스평택은 전국과 해외까지 핵심부품을 생산·납품하는 핵심공장이다. 상상도 못한 곳에 노조가 생기고 퍼지자 그룹도 고심했다. 현대는 올해 부품사에도 ‘일부 사업장 타결 후 나머지 압박’ 관리전략을 폈다.

경기 3지회는 “그룹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않겠다. 길들이기 안 통한다. 10원 한푼 안 올라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넘는 투쟁한다. 돈 몇 푼보다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노조를 지키는 게 미래다. 함께 최선을 다해 잘 했다고 느낄만큼 투쟁하

▲ 전조합원 통합조회 중인 현대모비스평택지회 조합원들
 겠다. 우리 인생, 우리 지회의 타결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파업한다.

화성지회 고참 이정숙 조합원은 지난 주 파업결의대회에서 “작년까지 골병 12년 차에 너무 아프고,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 날까. 회사를 가? 말아?’ 걱정하며 다녔어요. 근데 노조 만들고 1년 만에 4키로 쪼어. 마음이 편해져서. 우리 지금도 다 열심히 내 일같이 형제같이 잘 하고 있지만, 지금 마음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지금처럼 끝까지 감시다. 너무 멀리지만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했다. 그래, 그 마음이다.

지면이 좁아 담지 못한 소식이 많아 죄송합니다!
 다음 호에 꼭! 나누고픈 소식, 지부로 연락주세요^^